

조달청, 정부물품관리 우수기관 선정

- 내용연수, 불용품 처분, 수시 재물조사 등 총 24개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
- 소화기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품, 컴퓨터서버 등 중요 전산장비는 내용연수 연장 사용시 가점 대상에서 제외. 사고 예방을 위한 적기 교체 유도
- 우수기관과 담당자에게는 9월 '조달의 날' 행사 때 정부포상 추진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938개 국가기관, 28조 원 규모의 물품관리 실태를 종합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 2005년부터 「물품관리법시행령」제5조의2에 근거하여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 제도를 운영 중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앙관서(58개) 기준으로 (이하 가나다순)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지식재산처, 해양경찰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상세 평가결과는 정부물품관리시스템 (rfid.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평가 결과는 각 기관의 재정절감 기여도, 물품활용, 정책평가 등 24개 지표를 이용하여 산정되었다. 또한 올해 평가부터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품, 중요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이상 연장 사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물품에서 제외하여 장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적기 교체를 지원토록 평가기준을 개선하였다.

* 물품관리 종합평가 지표

- ▶ 재정절감: 내용연수 연장 이용률 등 ▶ 물품활용: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
- ▶ 물품관리: 물품감사, 생애주기 모니터링 등 ▶ 정책평가: 취약계층 무상지원 등

조달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과 담당자에게 오는 9월 30일에 있을 '조달의 날' 행사 때에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전년에 비해 평가 순위가 대폭 상승한 기관도 포상 대상에 포함하여 기관의 물품관리 노력을 재고할 것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물적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높아진 안전의식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발맞추어 물품관리 종합평가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공공물자국 물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송명근 (042-724-7164)
		담당자	서기관	배철규 (042-724-7134)

